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7호 【루계 제25616호】 주체106(2017)년 4월 1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 성황리에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열병식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이 4월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주체의 전군사에 특기할 사상최대규모의 새롭고 특색있는 열병식을 거행하여 민족최대의 명절, 혁명적대경사의 날인 태양절을 대정치축전으로 경축한 긍지와 영예를 안고 뜻깊은 축하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열병식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며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변혁들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에 높이 울린 승리의 대진군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인민적찬가들을 훌륭히 창조형상하여 뜻깊은 축하무대에 펼쳐놓았다.

세기를 주름잡는 기적의 만리마를 타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주체강국의 강용한 기상이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에 실려 굽이친 무대에는 남성합창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남성합창 《최고사령관동지 건강을 축원함》, 남성독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무반주합창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남성합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남성4중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속에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만대에 길이 빛나라 우리의 태양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영생축원의 송가와 함께 혁명의 려정에 찬란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는 불멸의 태양상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내는 열광적인 박수와 격정으로 달아올랐으며 관람자들의 가슴마다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였다.

무적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이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한평생 혁명의 최전방에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노래들은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수령결사옹위군, 불패의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구가한 《포병의 노래》, 《땅크병의 노래》, 《항공군가》, 《잠수함해병의 노래》, 《화성포병의 노래》 등으로 관현악과 노래련곡무대를 펼친 《우리를 보라》를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창건되고 안락으로 멋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주체적혁명무력의 위용을 힘있게 떨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따라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최후승리의 축포성,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높이 울려갈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을 담은 혼성6중창 《승리는 대를 이어》, 관현악과 노래련곡 《사회주의 지키세》, 녀성중창 《전진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주의 핵위성으로 최강의 국력을 떨치며 천만년 무궁번영할 태양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나갈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된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일심단결과 자강력으로 강대한 영웅조선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 철의 진리를 장엄하고 기백있는 혁명군가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출연자들과 열병식참가자들은 또다시 《만세!》의 환호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병식참가자들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태양의 위업을 백두산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군력과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천백배로 증대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나아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주체의 태양 빛나는 백두산대국의 앞날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다함없는 그리움과 신념의 맹세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이 땅, 이 하늘아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께로 끝없이 달리고달리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영생축원의 마음을 안고 찾아온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로 하여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뜨겁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으로는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의 대오가 끝없이 굽이치였다.

대원수별이 부각된 돌대문을 지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태양의 미소를 보내주고계시였다.

아, 언제나 해빛같은 미소, 태양의 미소를 만면에 담으시고 백두산대국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격정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숭엄히 걸음을 옮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앞에 이른 그들은 옷깃 여미고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꿈결에도 그리워 달려가 안기고싶고 안기면 인민이 아뢰이는 만단사연을 다 들어주시는듯싶은 영원한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 온 나라 인민이 삼가 마치는 태양찬가가 봄빛넘치는 4월의 이 강산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하늘가에 그토록 뜨겁게, 숭엄히 울려퍼지고있음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절감하였다.

그들속에서 우리는 한 나이지숙한 사람을 만났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후보원사 교수 박사 정순기동무였다.

어버이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워 아들, 손녀와 함께 태양의 성지를 찾았다는 그의 말은 절절하였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이민위천을 평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짱그리 바치시여 우리 인민을 이 세상 제일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인민의 어버이,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울리는 그의 말이였다.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정녕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스승이였고 그이는 인민의 충직한 아들이시였다.

10대의 시절 짓밟힌 조국과 인민을 위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이민위천의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인민의 수령, 인민의 어버이의 한평생을 빛내이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 하시며 만고의 항쟁사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 엮으신 어버이수령님,

침략자들의 떼무리가 이 땅에 달려든 엄혹한 전화의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을 이끌어 기적적인 전승을 안아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인민의 요구와 념원을 정책에 담으시고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짱그리 바치신 우리 수령님,

자신의 탄생일에도, 뜻깊은 명절날들과 휴식일에도 인민을 찾고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교시하군 하시였다.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고 행복이라고.

진정 인민을 위해 이 땅의 첫 새벽문을 선참으로 여시고 밤의 마지막문을 닫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을 격정에 넘쳐 우러르며 온 나라의 인민들이 삼가 부르고부른 노래 《수령님 밤이 퍼 깊었습니다》,

정녕 그것은 노래이기 전에 인민의 념원,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였다.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업적을 못 잊어 태양절을 맞으며 수령님을 찾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인민들로 차넘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였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당과 국가를 건설하고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이런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는 우리의 존엄높은 공화국기와 당기가 휘날리고 곳곳마다에는 만천의 꽃송이들이 향기를 풍기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많은 사람들로 차넘치였다.

집체적으로 혹은 가족별로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속에는 려명거리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자랑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충정의 보고를 드리는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속도전청년돌격대 제1려단 2대대 1중대 대원들 그리고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하였던 강원도려단 철원군대대 돌격대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7명의 손자, 손녀들과 아들, 딸을 앞세우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동대원구역 문신1동 48인민반에서 사는 80고령의 김경화할머니의 눈가에도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있었다.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인생의 새봄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은 해방의 은인이시여서 오늘도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고 하는 할머니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신 이 땅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려명거리를 일떠세운 자랑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였다.

물결쳐흐르는 사람들속에서 유별하게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붉은넥타이를 휘날리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락랑구역 원암초급중학교 학생들과 만경대구역 팔골초급중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한평생 제일로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키워주신 만단사연들이 삼삼히 어려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고 빛내어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길이 빛내일 마음안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철도종합대학 박사원생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감명도 컸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사진기의 렌즈에 담는 그들이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린 이 땅, 이 하늘아래 키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길이 떨쳐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시여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백두산혁명강군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다지는 맹세는 불같았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국가계획위원회 책임부원 박명철동무의 가슴에도, 평양철도국 간리역 종업원들의 가슴에도, 대성구역 룡흥1동의 박혜성동무의 가슴에도 절사의 맹세가 끓어번지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새날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대국의 끝없이 밝고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듯 주체의 최고성지의 광장에는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이 끝없이 뿌려지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김 인 선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당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종코르 랄 쉬레스타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에. 에르데네쟈비안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모스타파 자말 하이데 전국집행리사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슈자티야당대표단, 세예드 모흐셈 플라이 제1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류명선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세예드 모흐셈 에마디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네팔련합민족사회주의당대표단

방글라데슈자티야당대표단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해외연고자가족들,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해외연고자가족들을 위한 연회가 16일에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장울화, 주보중, 채세영, 계청, 강자화, 류통사, 범덕륜, 상월가족일행들, 호진일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김순옥, 박길송, 김철, 서순옥, 량성룡가족일행들,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 국제주의전사 아. 페. 노비첸꼬가족일행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김정임 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기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해외연고자가족들을 위한 은정깊은 연회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기간 인연을 맺으시였던 해외에 있는 혁명전우들과 유가족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한평생 친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연고자가족들이 더없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해외연고자가족들의 친어버이이시며 자애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또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장내는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연회에는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지와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철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절세위인들의 념원과 리상을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으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온 겨레를 애족애국의 한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태양영생의 성스러운 력사는 세세년년 흐를것이며 백두산통일강국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해외동포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권순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이 연설하였다.

그는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뜨거운 동포애로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대축전장에 해외동포들을 불러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을 담아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태양절경축행사들을 통하여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시는 길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철의 진리를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인민들의 전민총돌격전에 보조를 맞추어 백두산천하제일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불타는 애국지성을 다 바쳐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승리의 려명을 안아온 불멸의 영웅서사시

려명거리건설에 새겨진 위대한 충정과 헌신의 나날을 더듬어

세계가 예측할수 없는 사변들이 련이어 터지는 우리 조국의 2017년은 참으로 희한한 해이다.

경이적이고 눈부신 기적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속에 태양의 노래 울려퍼지고 온갖 꽃 다투어 피여나는 4월 인민의 리상거리가 우주로 날으는 위성의 속도처럼 솟아나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천만군민의 만세함성이 이 땅에 메아리친다.

가장 운명적이고 책임적인 력사적 시각에 주체조선의 진모를 알게 한 려명거리건설완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에 의미심장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초고층건축군과 다층건축군, 멋진 공공건물들과 봉사망들로 하여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에 들어서면 마치 이깔나무, 붓나무 실레이는 청신한 백두의 수림속을 걷는듯 하여 한생토록 백두의 넋으로 살며 혁명할 신념을 더더욱 굳혀준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를 기어이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찬란한 현실로 확증한 거리,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와 우리가 리상하는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거리,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경제적잠재력과 조선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할수 있고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 살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로동당시대의 선경 려명거리는 희세의 총신이시며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업적과 자기의 령도자와 뜻을 같이하는 강용한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에 대하여 천만년 길이 전하리라.

위대한 충정의 정화

그 이름도 숭엄한 려명거리에선 누구든지 한눈에 보고 격정으로 무릎 가슴으로 뜨겁게 절감한다.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의 노래속에 흐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의 끝없는 충정의 대하를, 선군혁명승리의 장쾌한 축포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창창히 뻗은 백두산대국의 휘황찬란한 천만리를.

낮은 낮대로 화려한 불바다를 련상케 하고 불야경흐르는 밤은 밤대로 행복의 노래로 잠들줄 모르는 려명거리복판에 서면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오직 인민의 행복만을 위하신 수령님들의 념원이 또 하나 실현되였습니다!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격정넘친 음성이 울려오는것만 같아 천만의 가슴 불덩이를 안은듯 뜨겁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끝없이 부르는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태양의 성지에서 가장 가깝게 보시며 언제나 기쁨에 겨워하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가슴가득 차올라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려명거리건설완공은 온 한해 태양의 성지에 마음을 얹고 려명거리와 함께 즐탈음쳐온 온 나라 인민모두의 경사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끝없는 환희와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온 세상이 환하도록 태양의 미소를 지으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천만의 철의 대오는 우리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에 바치신 충정과 의리, 헌신의 나날을 달아오른 가슴으로 경건히 더듬는다.

태양의 성지와 잇닿은 려명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업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영원한 충정의 위업임을 세상에 과시하는 력사의 증견자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을 한해 앞둔 지난해 년초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과 마음은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달려고있었다.

력사적인 대축전을 앞두고 참으로 거창하고 방대한 사업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앞에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 때 우리 나라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할것이라는 신념으로 자나깨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이런 불타는 충정으로 위대한 사적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룡남산지구를 백두산대국의 래일을 상징할수 있게 더 훌륭히 꾸리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충정을 헤아리시어 새 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울 웅대한 발기를 하시였다. 그날은 려명거리건설선포를 두달 앞둔 지난해 1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룡남산이 자리잡고있어 더없이 의의있는 려명거리는 건설의 장엄한 고고성을 터치였다.

려명거리건설의 시작과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 판통된 혜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다함없는 충정과 의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숭엄한 격정속에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형성에서 정중성보장은 그이의 첫째가는 관심이였다.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는 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주변에 건설하는 려명거리는 정중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건설하여야 합니다. 려명거리건설에서는 정중성보장이 핵심입니다.》

정중성보장의 원칙에서 금수산태양궁전쪽에는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배치하고 영생탑쪽에는 70층, 55층등 초고층건물들로 웅장화려한 건축군을 형성하며 그밖의 도로주변에 지대적특성과 조화되는 건물들을 일떠세우면 려명거리형성이 특색있게 될것이다.…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인품, 숭고한 충정을 체현하고 동서고금의 건축사와 인류가 창조한 모든 건축유산을 환히 꿰는 건축예술의 정수로 내리울수 없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무지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우리 당의 철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적들을 전률케 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위한 적들의 숱한 책략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되게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장은 이런 비상한 의지로 높뛰였다.

세계의 모든 눈귀가 일촉즉발의 정세속에 있는 우리 조국으로 쏠리던 지난해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옹지를 틀으시고 태양의 성지로 가는 길에 나서시였다.

한쪽에서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반공》, 《북진》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한쪽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쏠라닥거릴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놈들의 정수리를 후려치기 위하여 강선을 찾으시던 그때처럼, 자주적군위병으로 당당히 미리를 들고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길을 택하시던 그때처럼 참으로 력사의 무게가 실린 큰결음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려명거리건설전역에 울려퍼졌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제일 악랄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의 목을 조이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려명거리를 건설하는것은 적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맞받아나가는 우리 당의 의지를 내외에 시위하는것으로 되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몰골에 비수를 꽂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려명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여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제재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계속 승승장구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퇴로 원쑤들의 대갈통을 박산낸 천만군민의 의지를 선언한 려명거리건설선포보도는 삼시에 온 나라에 원쑤격멸의 함성, 만세의 함성이 진감하게 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위한 사회주의수호전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강국건설대전의 발현인 려명거리건설은 이렇게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려명거리를 건설한다는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려명거리를 건설한다고 선포한것은 우리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끝까지 가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습니다.》

적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떨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백두산대국의 기개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온몸에서 발산하였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최후승리의 대업을 반드시 이룩할 의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나도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원쑤들과의 관가리대전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적들이 숱한 특수작전무력들과 테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코앞에서 《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던 때였지만 전연초소들에서 인민군대를 려명거리건설장으로 급파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승리, 이는 곧 인민의 승리이다.

참으로 완공된 려명거리는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늘 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의 의지와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엄숙한 맹약을 희한한 현실로 펼쳐보인 력사의 증견자이다.

위대한 우리 인민앞에 장중한 음악이 온 누리에 울려퍼지는듯한 려명거리에 서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인민의 지위를 알수 있고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살 인민은 마땅히 그 존엄과 권위에 맞는 이런 리상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언어를 읽을수 있다.

려명거리건설을 최단시일내에 무조건 끝낼것을 인민과 약속하시고 인민성을 최대한 구현하여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세심히 관심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편의봉사단위들을 기본으로 거리봉사망형성, 살림집들에 깔아준 자연채광창,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초고층살림집에 여러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진행한 시운전만도 무려 500회이상, 온온하면서도 품위있는 불장식…

그러시고도 지난 3월 또다시 완공을 앞둔 건설장을 찾으시여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간고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강국건설대전사는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혁명이 어떤 불굴의 기적을 낳는가를 과시한 성스러운 투쟁사이며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숨결도 같이하는 위대한 혼연일체가 어떤 놀라운 사변을 안아오는가를 웅변한 사상적진군사이다.

려명거리, 정녕 그 이름은 무심히 부를수 없다.

천만의 가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할 불타는 열망이 용솟게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신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는 거리이다.

얼마전 황홀경을 펼친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과 초를 다투며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에 의하여 려명거리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라고 격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거둔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과 투쟁기풍의 발현인 만리마속도.

이는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실현의 시간이다.

5년이나 10년이 걸려서야 새 거리를 하나 건설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해마다 새 거리를 하나씩 건설하였다. 이것은 사실 건설에서 세월을 주름잡는 놀라운 건설속도이다. 어려운 조건에서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해내는 우리의 경제적잠재력을 떠나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이다.

그 규모면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2배가 넘는 려명거리건설은 번영의 대서사시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용지의 발현이였다.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조국의 문명의 높이를 떨치는 려명거리건설소식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무더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적들은 아우성을 치고있던 올해 1월 어느날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전역에 높뛰고있는 숨결을 절감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 태양절까지 려명거리를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웅장화려한 거리로 완공함으로써 우리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원쑤들에게 타격을 주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떠나시면서도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에게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마지막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진실을 밝히신 날 려명거리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열의에 의하여 지난해 거의 완공을 앞두고있던 때 우리는 북부지역에서 자연의 대재앙을 당하였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이 전투파지를 북부전역으로 옮기고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난해말에 려명거리완공을 세상에 선포하였을것이다.…

태양절전으로!

세상을 경탄시키는 조선의 만리마속도창조의 배경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런 불타는 념원이 있었다.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실현에 온넋을 쟁그리 쏟으시고 그를 위한 강행군에 박차를 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로 향한 우리 천만군민의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리상을 꽃피우는데서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으로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진주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자기의 령도자에게 바치였다.

《태양절전까지! 누구나 물동을 지고 달리면서도, 팔에 자게바람이 일도록 미장작업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백번 외운 말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태양절전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려명시간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류화식동무의 이 소박한 말에서 철의 대오를 산악같이 분발시킨 만리마속도창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동깊이 느끼게 한다.

려명거리건설자모두의 이런 뜨거운 숨결이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속도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걸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울수 있었다.

오직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고유한 이 불타는 충정의 세계를 뜨겁게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정에 떠받들려 금수산지구에 웅장화려한 새 거리가 일떠서고 주체의 최고성지가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고 그리도 격정을 금치 못하신것 아니던가.

지난 1월 어느날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우리 조국의 문명의 높이를 과시하는 대격전장 려명거리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한개 도시와 맞먹는 새 거리를 일떠세우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 순결무구한 세계를 다 전하기에는 이 세상의 말과 글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기적적으로 솟아난 려명거리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과시인 동시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현실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태양절을 맞으며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핵으로 세계를 크게 진동시켰다.》

《너무도 웅장화려하고 무아경속에 잠기게 하는 거리, 못 보면 한이 되고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려명거리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핵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조선인민 모두가 자기의 령도자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부르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도 돈 한문 내지 않고 살게 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세계는 진정 경탄과 부러움을 아끼지 않는다.

인민이 누려갈 사회주의만복의 절정

서로서로 키돋음하며 우아하고 황홀한 자태를 시위하는것만 같은 초고층건축군, 병풍식, 탑식 등 특색있으면서도 아담한감을 주는 다층건축군, 각이한 록화기술이 도입된 지붕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아름다운 희망과 리상, 무한한 창조의 세계의 결정체인 려명거리건설의 완공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걸으시는 길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상징하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임을 다시한번 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한 일대 정치경륜이다.

사실 려명거리건설의 전과정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지난해 년초부터 미증유의 사변들을 터치는 우리 나라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것을 계기로 적대세력들의 정치, 경제적압력과 공갈, 군사적침략광기가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것으로 하여 정세는 참으로 분분초초로 첨예하였다.

이처럼 엄혹한 속에서 혁명의 중하를 걸머진 령도자의 불굴의 신념은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이였다.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근 한세기에 걸쳐 고수하여오신 정의의 기치를 절대로 내리울수 없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무지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우리 당의 철의 의지와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적들을 전률케 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위한 적들의 숱한 책략들을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되게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심장은 이런 비상한 의지로 높뛰였다.

세계의 모든 눈귀가 일촉즉발의 정세속에 있는 우리 조국으로 쏠리던 지난해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옹지를 틀으시고 태양의 성지로 가는 길에 나서시였다.

한쪽에서는 미제를 피수로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반공》, 《북진》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 한쪽에서는 종파분자들이 쏠라닥거릴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놈들의 정수리를 후려치기 위하여 강선을 찾으시던 그때처럼, 자주적군위병으로 당당히 미리를 들고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길을 택하시던 그때처럼 참으로 력사의 무게가 실린 큰결음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려명거리건설전역에 울려퍼졌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제일 악랄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의 목을 조이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려명거리를 건설하는것은 적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맞받아나가는 우리 당의 의지를 내외에 시위하는것으로 되며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더러운 몰골에 비수를 꽂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려명거리를 훌륭히 건설하여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제재속에서도 우리 혁명이 계속 승승장구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퇴로 원쑤들의 대갈통을 박산낸 천만군민의 의지를 선언한 려명거리건설선포보도는 삼시에 온 나라에 원쑤격멸의 함성, 만세의 함성이 진감하게 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위한 사회주의수호전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강국건설대전의 발현인 려명거리건설은 이렇게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려명거리를 건설한다는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려명거리를 건설한다고 선포한것은 우리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끝까지 가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습니다.》

적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떨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백두산대국의 기개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온몸에서 발산하였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최후승리의 대업을 반드시 이룩할 의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김형직선생님처럼,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밑천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조국을 그 어떤 대적도 범접하지 못하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처럼 나도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원쑤들과의 관가리대전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적들이 숱한 특수작전무력들과 테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코앞에서 《작전》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던 때였지만 전연초소들에서 인민군대를 려명거리건설장으로 급파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승리, 이는 곧 인민의 승리이다.

참으로 완공된 려명거리는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늘 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의 의지와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엄숙한 맹약을 희한한 현실로 펼쳐보인 력사의 증견자이다.

위대한 우리 인민앞에 장중한 음악이 온 누리에 울려퍼지는듯한 려명거리에 서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인민의 지위를 알수 있고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에 안겨살 인민은 마땅히 그 존엄과 권위에 맞는 이런 리상거리에서 가장 훌륭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언어를 읽을수 있다.

려명거리건설을 최단시일내에 무조건 끝낼것을 인민과 약속하시고 인민성을 최대한 구현하여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세심히 관심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편의봉사단위들을 기본으로 거리봉사망형성, 살림집들에 깔아준 자연채광창,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초고층살림집에 여러대의 승강기를 설치하고 진행한 시운전만도 무려 500회이상, 온온하면서도 품위있는 불장식…

그러시고도 지난 3월 또다시 완공을 앞둔 건설장을 찾으시여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만리마속도창조의 고향

간고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강국건설대전사는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혁명이 어떤 불굴의 기적을 낳는가를 과시한 성스러운 투쟁사이며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숨결도 같이하는 위대한 혼연일체가 어떤 놀라운 사변을 안아오는가를 웅변한 사상적진군사이다.

려명거리, 정녕 그 이름은 무심히 부를수 없다.

천만의 가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할 불타는 열망이 용솟게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신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는 거리이다.

얼마전 황홀경을 펼친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과 초를 다투며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에 의하여 려명거리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에서 창조되는 건설속도야말로 사회주의조선의 진군속도이며 우리 당의 강국건설속도라고 격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거둔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과 투쟁기풍의 발현인 만리마속도.

이는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실현의 시간이다.

5년이나 10년이 걸려서야 새 거리를 하나 건설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해마다 새 거리를 하나씩 건설하였다. 이것은 사실 건설에서 세월을 주름잡는 놀라운 건설속도이다. 어려운 조건에서 무엇이나 마음먹은대로 해내는 우리의 경제적잠재력을 떠나 상상도 할수 없는 기적이다.

그 규모면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2배가 넘는 려명거리건설은 번영의 대서사시를 써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한 용지의 발현이였다.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조국의 문명의 높이를 떨치는 려명거리건설소식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무더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적들은 아우성을 치고있던 올해 1월 어느날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전역에 높뛰고있는 숨결을 절감하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 태양절까지 려명거리를 최상의 문명이 응축된 웅장화려한 거리로 완공함으로써 우리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원쑤들에게 타격을 주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합니다.》

떠나시면서도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에게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마지막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진실을 밝히신 날 려명거리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열의에 의하여 지난해 거의 완공을 앞두고있던 때 우리는 북부지역에서 자연의 대재앙을 당하였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이 전투파지를 북부전역으로 옮기고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지난해말에 려명거리완공을 세상에 선포하였을것이다.…

태양절전으로!

세상을 경탄시키는 조선의 만리마속도창조의 배경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이런 불타는 념원이 있었다.

애오라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실현에 온넋을 쟁그리 쏟으시고 그를 위한 강행군에 박차를 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로 향한 우리 천만군민의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리상을 꽃피우는데서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으로 려명거리건설자들은 진주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자기의 령도자에게 바치였다.

《태양절전까지! 누구나 물동을 지고 달리면서도, 팔에 자게바람이 일도록 미장작업을 하면서 하루에도 몇백번 외운 말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라시는 태양절전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려명시간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류화식동무의 이 소박한 말에서 철의 대오를 산악같이 분발시킨 만리마속도창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감동깊이 느끼게 한다.

려명거리건설자모두의 이런 뜨거운 숨결이 세기를 주름잡는 만리마속도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걸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세울수 있었다.

오직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고유한 이 불타는 충정의 세계를 뜨겁게 헤아리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정에 떠받들려 금수산지구에 웅장화려한 새 거리가 일떠서고 주체의 최고성지가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고 그리도 격정을 금치 못하신것 아니던가.

지난 1월 어느날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 우리 조국의 문명의 높이를 과시하는 대격전장 려명거리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한개 도시와 맞먹는 새 거리를 일떠세우고있는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 순결무구한 세계를 다 전하기에는 이 세상의 말과 글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기적적으로 솟아난 려명거리는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과시인 동시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현실로 보여주었다.

《조선은 태양절을 맞으며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핵으로 세계를 크게 진동시켰다.》

《너무도 웅장화려하고 무아경속에 잠기게 하는 거리, 못 보면 한이 되고 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려명거리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핵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조선인민 모두가 자기의 령도자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부르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것도 돈 한문 내지 않고 살게 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다.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세계는 진정 경탄과 부러움을 아끼지 않는다.

과연 무슨 힘이였던가.

위대한 승리자들의 활무대인 려명거리는 령도자의 믿음에 피끓는 심장을 바치는 사람은 불사신이며 최강자라는 선군혁명사의 진리, 일심단결의 원천을 확증하는 력사의 대변자이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선포한 려명거리건설의 책임적인 임무를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 그 하늘같은 믿음속에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다는 불같은 자각, 바로 이것이 려명거리건설참전자모두의 공통된 사상감정이고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낳게 한 원천이였다.

령도자의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무섭게 일떠서 백열전을 벌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14분에 한세대의 살림집을 조립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세계가 인공위성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경탄하던 1950년대의 사상정신적특질과

어버이수령님의 애국념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갈 불타는 맹세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

주체비료생산자들의 신념의 노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보고

지난 11일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예술소조공연의 첫막이 올랐다.

주체비료생산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억척의 신념이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불붙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사로운 손길아래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꽃피워온 자랑을 가지고있다. 새 세기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여러차례나 예술소조공연을 진행하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는 나날에 흥남로동계급은 선군시대군중예술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한 긍지높은 주인공들로 성장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이번까지 모두 네번째로 축전에 참가하였다.

신심과 락관이 넘치고 로동계급의 맛이 나는 이들의 공연에서 관람자들에게 제일 깊은 인상을 남긴 종목은 민족기악병창 《제힘이 제일이야》이다.

민족의상을 떨쳐입은 예술소조원들이 장고와 팽파리를 치고 가야금을 타면서 민족적흥취를 돋구고 어은금을 든 예술소조원들이 목청껏 함께 부르는 노래소리에 관중들은 어깨를 들썩이였다.

장고를 치던 녀성예술소조원들이 장새남과 저대를 멋들어지게 부는 속에 울리는 흥남비료가 오누나라는 《신고산타령》의 노래, 이어 어은금을 연주하던 남성예술소조원들까지 합세하여 극장안을 들썩다놓으며 장고를 치는 가운데 무대우에 《주체비료》라고 한자한자 씌여진 붉은 천들이 펼쳐지자 공연분위기는 더 한층 고조되였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종목이였다.

우리와 만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인 박일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기업소에서는 촉매를 국산화하고 비료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더 많은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이 나날은 그대로 제힘이 제일이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나갈 때 제국주의자들의 〈초강경제재〉책동을 물거품처럼 만들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는 과정으로 되고있습니다.》

이번 축전을 준비하면서 기업소에서는 흥남로동계급의 심정이 잘 반영된 노래 《제힘이 제일이야》를 고르고골라 흥취나는 민족기악병창으로 특색있게 형상하여 무대에 올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성공시킨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장알진 억센 손에 장고채를 잡고 률동적인 솔가락까지 섞어가며 장고를 치고 어은금을 다룬다는것은 사실 힘든 일이였다. 낮에는 일터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밤은 밤대로 늦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느라면 온몸이 녹초가 되군 하였다. 예술소조원들가운데는 가정부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누구도 불러서지 않았다. 뜻깊은 축전무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흥남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실감있게 펼쳐보이기 위하여 그들은 동작 하나, 선률 하나를 높은 수준에서 창작하고 완성해나갔다.

주체비료생산자들의 기상과 본때를 보이자고 고무해주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모습은 전체 예술소조원들과 창작지도일군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마침내 이들은 언제나 황금벌을 안고 사는 흥남의 슬기, 흥남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를 무대우에서 훌륭히 펼쳐보일수 있었다.

이 종목뿐이 아니다.

이야기와 노래 《내 나라 어데 가나 내 조국 어데 보나》에 출연하는 로력영웅들인 류규설, 김광오동무를 비롯한 예술소조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흥남땅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작품을 진실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형상하기 위해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야기와 북제창 《우리는 만리마기수》에 출연하는 예술소조원들이 형상한 남성무용은 발생로직장의 전투현장에서 경제선동을 벌리는 나날에 직접 보고 느끼면서 찾아낸 하나하나의 촘가락들을 담고있다. 바로 이런 체험이 있었기에 예술소조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백℃나 되는 로안에서 벌린 로동계급의 전투모습을 방불하게 무대에 펼쳐보일수 있었다.

제창이야기와 요술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최대속도로》와 중창이야기 《나의 공장 나의 벗들》을 비롯한 종목들은 또 얼마나 생동하고 진실한것인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은 두가지, 세가지이상의 예술적기량으로 기업소예술소조의 특색이며 자랑인 취주악과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도 훌륭히 형상하였다.

군중예술의 본보기단위답게 언제나 앞장에서 달리려는 만만한 야심으로 꾸준하고 이악하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이였다. 화술이면 화술, 노래면 노래에도 박힘이 없을뿐아니라 두가지이상의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들의 공연을 보며 사람들은 역시 흥남이 흥남이라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온 흥남땅을 들끓게 하던 노래, 오늘은 뜻깊은 축전무대에서 높이 울리는 흥남로동계급의 신념의 노래와 더불어 자력자강의 위력을 떨치며 주체비료는 끝없이 쏟아져 산을 이루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가장 열렬한 영생축원의 인사,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충정의 보고, 승리의 보고가 되여!

본사기자 려명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예술소조원들— 본사기자 찍음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학탄광 예술소조원들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가리

몸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당중앙뜨락에 살리라.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가는 지하전초병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특장의 탄부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신념의 맹세이다.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학탄광 예술소조원들은 이 맹세를 지켜가는 탄부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축전무대우에 펼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신 20만톤의 석탄증산과제를 단 몇달만에 수행한 전세대의 투쟁기풍을 생동하게 펼쳐보인 작품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때의 투쟁기풍은 오늘도 특장의 지하전초병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학탄광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에서 특징적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석탄증산투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발휘하는 과정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시이야기, 제창이야기, 대중창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형상하여 축전무대우에 펼친것이다.

특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탄부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세멘트공장을 건설하고 련합기업소적인 경영업무정보체계를 실현하였으며 탄부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체육시설건설과 탄부자녀들을 위한 학교교사개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모든것은 석탄증산성과로 이어졌다.

결코 조건이 좋아서 이룩된 성과가 아니였다. 오직 자력자강하는 길만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한 특장의 지하전초병들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투쟁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였다. 이 단위의 예술소조원들은 그 내용을 다양한 예술형식에 담아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진실하게 펼쳐보였다. 하기에 이들의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한결같이 석탄증산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탄부들의 체취가 물씬물씬 풍기는 공연, 당중앙의 불빛을 지켜가는 지하전초병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비낀 공연,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이라고 하고있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특장의 탄부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공연은 우리 인민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고 그들모두를 더 큰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명중포화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단천청년기관차대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고

단천청년기관차대의 자랑인 《붉은기》 1호가 지금까지 지구주위를 160여바퀴 돈것과 같은 수백만km무사고주행 보장!

이 자랑도 좋지만 이곳 예술소조원들은 더 큰 자랑을 안고 이번 축전무대로 달려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노래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곳에는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번지기마련이다.》

지난해 철도성에서는 함북도 북부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수송전투가 진행되였다. 그 투쟁의 앞장에는 《붉은기》 1호전기기관차가 서있었다.

《감시원동무, 렬차를 왜 세웠소?》

《기관사동지, 저앞에 돌사태가…》

사고위험을 없애기 전에는 절대로 렬차를 통과시키지 말데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감시원의 보고였다. 철길우에 무드기 쌓여있는 바위돌들을 무섭게 노려보던 기관사가 이렇게 말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철도수송전사들은 홍토탄이 울부짖는 포화속을 뚫고 전시수송을 보장했소. 그런데 돌사태가 막아섰다고 〈붉은기〉 1호의 주인인 우리가 주저앉겠는가.》

모두의 얼굴에 근엄한 빛이 실리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만들어낸 첫 전기기관차의 이름을 몸소 《붉은기》호로 달아주시고 기관차의 앞머리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보란듯이 새겨넣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이 기관차를 순간도 멈춤없이 달리게 한 기관차승무원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고 《붉은기》 1호전기기관차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믿음을 어찌 한시인들 잊을수 있으랴.

《우리 〈붉은기〉 1호가 앞장에서 헤쳐나갑시다.》…

공연무대에 작품으로 형상되여 오른 이런 사실들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올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에 절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전시수송길을 달리는 심정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증송투쟁을 벌려온 이곳 수송전사들의 투쟁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당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절대로 기관차에서 내릴수 없다는 불같은 의지를 안고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한 기관차승무원들, 기관차들에 대한 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린 수리부문의 로동자들…

위대한 수령님 따라 천만리,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리 붉은기높이 휘날리며 달려온 두줄기궤도를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이어갈 신념의 맹세가 이곳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투쟁열의를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그날의 승리의 기적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본사기자 조향미

북부전역화물수송을 위한 투쟁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예술소조원들모두가 바로 그 투쟁의 주인공들이여서,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창조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온 로동계급이여서 공연이 주는 감동은 더욱 컸다.

우리와 만난 예술소조책임자인 기관사 최광일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이번 축전무대에 〈붉은기〉 1호의 책임기관사인 공훈기관사 최태철동무가 직접 출연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도 그를 무대우에서 만나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의 붉은기를 계속 높이 휘날리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드높은 신심에 넘쳐있는 이곳 수송전사들의 불같은 투쟁열의를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그날의 승리의 기적소리가 금시라도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었다.

본사기자 조향미

현실속에서 련마해온 예술적기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리일으켜 주체혁명위업을 추동해나가는것입니다.》

이번 축전에는 불끓는 현실속에서 자기들의 기량을 한껏 련마해온 여러 단위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참가하였다. 한번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이들의 공연은 참신하면서도 박력있는 우리의 군중문화예술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에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어떻게 불을 달아주고있는가를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심금을 틀어잡는 명중포화의 비결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제일 많이 받아안는 축전참가자들속에는 **담배련합기업소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있다. 물론 그들에게는 지난 기간 여러차례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랑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공연이 관중들의 요란한 박수갈채를 받을수 있게 된것은 단지 그때문만이 아니다. 불끓는 현실에 적극 뛰어들어 만리마속도로 질풍쳐 내달리는 조국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의 심장을 정확히 명중하는 보리를 제작하였기때문이다.

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큰 힘을 넣으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여 기쁨을 드리였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들이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대건설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하여 송광철, 장철동무를 비롯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지난 시기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렸다.

건설자들과 함께 맞들이를 들고 가파로운 층계를 달려오르는 심정으로 이들은 노래를 불렀다.

이처럼 그들모두가 진심으로 조국의 벅찬 현실에 공감하고 격동하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할줄 아는 진짜배기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이였기에 그렇듯 축전무대에서도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아안을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정상화된 기량발표회

평안북도정보통신국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은 통속적이며 참신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중에서도 최은향동무의 특색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들었다놓은 녀성독창과 합창 《만복의 아리랑》은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축전에 처음 참가하는 단체로서 이처럼 큰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된것은 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종업원들의 기량발표회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국에서는 종업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 활짝 꽃피워주기 위한 기량발표회를 매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하여 최근년간에만도 수십명의 손풍금수를 찾아냈으며 전도유망한 기타독주가들도 키워낼수 있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에서는 요구수준을 계속 높였다. 매 발표회때마다 지난 시기보다 기량이 높아진 사람들만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던것이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은 모두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도와 시적으로 널리 소문난 정보통신국이 이제는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도 앞선 단위로 되였다. 그와 더불어 국에서는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어렵다고 하던 통합관리체계를 개발도입하여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 자랑은 이번 축전무대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한경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들 로씨야에서 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들이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싼크트-페쩨르부르그시의 레닌그라드금속공장에 제막되였다.

사적현판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10월 24일 레닌그라드금속공장을 다녀가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2001년 8월 6일 레닌그라드금속공장을 다녀가시였다》라는 글이 조문과 로문으로 씌여져있다.

제막식이 10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제막식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기발과 로씨야기발이 게양되여있었으며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제막식에는 싼크트-페쩨르부르그주재 로씨야 외무성대표와 시행정부 대외련계위원회 1부위원장, 쎈로비에 마쉬니공개주식회사 1부총사장 등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해당 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현판들을 제막하게 된것은 전체 시민들과 시행정부의 커다란 경사로 된다고 하면서 이번 제막식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는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쎈로비에 마쉬니공개주식회사 1부총사장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사적현판들을 제막하였다.

참가자들은 사적현판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은 온 누리를 비친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1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고향집에 들어선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할 때마다 커다란 감동을 받군 한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세계가 공인하는 절세의 위인이신 주석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엘레나 바비치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 위원장은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위인의 고향집이 이렇듯 평범하고 소박한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어린시절부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고매한 풍모를 지니시였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다, 참으로 조선인민은 복받은 인민이다고 강조하였다.

만주 라뜨나 사찌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

오늘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고있다.

조선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위대한 나라이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은 온 누리를 비치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할것이다.

이에 앞서 손님들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상봉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로세대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새 세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상봉모임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로세대 주체사상신봉자들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찌야,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쎄꾸나 까마라가 발언하였다.

그들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령도력, 강철의 의지와 락월한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풍모를 격찬하면서 그이께서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적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 새 사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민족자주, 인류해방의 길을 환히 밝힌 주체사상은 오직 사상리론의 천재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창시하실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결성하고 보급활동을 벌려온 나날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미국과 서방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산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리하는것은 과학이라는데 대하여 그들은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위핀 굽따를 비롯한 세 세대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을 가장 명확히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의 신봉자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모임은 영원히 주체의 해발을 따르며 주체조선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어 자주의 새시대를 빛내여가려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의 합창으로 끝났다.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뜻깊은 올해의 첫기 야영에 참가하게 된 야영생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드시고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어버이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고넘쳤다.

첫기 야영시작모임이 15일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야영소 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랑랑히 울리고 야영기발이 게양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어버이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궁전으로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된 크나큰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석암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도 첫기 야영이 시작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꽃향기속에 영생하시는 우리 수령님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인민군군인들의 충정의 마음어린 전시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김일성화를 재배하는데서나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고있습니다.》

제19차 김일성화축전에서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여러 무력기관들의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마다 격정에 휩싸여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불멸의 꽃

수령결사옹위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선군혁명위업을 굳건히 보위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는 인민무력성전시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혁명의 총대로 위대한 태양을 영원히 옹위해나갈 불타는 충정과 억척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한 인민무력성의 일군들과 장병들이기에 이번 꽃축전준비사업에도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였다.

태양을 받드는 마음에 한점의 티라도 있을세라 언제나 마음쓰며 일군들은 축전준비사업을 수시로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었고 전시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기 위해 불타는 열정을 기울이였다.

평양과 멀리 떨어진 자기들의 초소들에서 꽃재배에 좋은 부식토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오고 태양의 꽃축전장을 더욱 훌륭히 장식하는데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바쳐온 인민군장병들.

태양의 꽃을 가려오면 나날과 더불어 인민군장병들의 필승의 신심은 더욱 굳건해지고 누구나 백발백중의 명사수,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성장하였다.

불멸의 꽃축전준비과정은 그대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총대로 결사옹위해갈 불변의 신념이 더욱 억세게 자리잡은 나날이였다.

이런 불같은 신념들에 받들려 피여난 천여상의 김일성화로 훌륭히 형상된 인민무력성전시대는 볼수록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철석의 의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여

조선인민군 김광철소속부대전시대도 참관자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천하제일강군으로 자라나 언제나 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무력의 성스런 80여년의 력사를 서리발치는 백두산총대의 힘있는 형상속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이켜보게 하는 이곳 전시대.

부대일군인 백일훈동무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려주었다.

축전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겨울 어느날 부대장병들의 충정의 마음이 그대로 불멸의 꽃들마다에 어리도록 온실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부대정치일군이 또다시 불쑥 온실로 들어섰다. 차혁동무를 비롯한 온실성원들이 차상한 겨울철습기보장에 필요한 가습기제작이 드디여 성공했다는것을 알고 즉시 달려나온것이였다.

부대정치일군의 모습을 보며 온실성원들은 가습기제작을 위한 설계안도 몇번이나 함께 토론해주고 새로운 착상도 띄워주며 과학기술의 나래를 활짝 펴도록 적극 떠밀어주던 나날이 어려와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나가는데서도 우리 인민군대가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는 부대책임일군들의 고무와 적극적인 방조가 있어 온실성원들은 물정화기와 분무기를 비롯하여 꽃재배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과 나노기술을 리용한 새로운 살균제도 자체의 힘으로 연구도입하였으며 하나같이 원종적특성을 잘 살려 수백상의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워낼수 있었다.

이렇듯 축전준비의 나날 최계호, 최용삼, 백영일동무를 비롯한 전체 부대장병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과 함께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려는 자력자강의 정신도 끝없이 분출되였다.

참으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꽃재배에서도 앞장서나가려는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의지가 억센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여 아름답게 피여난 김일성화이기에 경사로운 4월의 축전장을 더욱 황홀하게 장식하고있다.

* *

무력기관전시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확신성있게 그려볼수 있었다.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억척의 보검으로 다져지고 강대해진 선군의 총대에 받들려 세세년년 끝없이 이어질 영생축원의 꽃바다, 충정과 신념의 꽃축전의 빛나는 래일을.

글 본사기자 주령봉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축전장으로 달려온 한마음

위대한 그 업적 전하고싶어

대외전람총국전시대를 찾은 참관자들은 특색있게 형상된 전시대를 바라보며 연해연방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번 축전을 앞두고 전시대를 특색있게 형상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총국일군들의 뇌리에는 지난 시기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전람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 전람회장을 찾은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우러르며 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부르는것이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전람회들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그 열화같은 마음들을 안아보면서 총국일군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그렇다.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업적을 전하는 전시대를 형상하자.

이렇게 되여 힘차게 돌고있는 우리 인공지구위성을 형상한 직관물을 배경으로 200여상의 김일성화를 전시하고 그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형상한 특색있는 전시대가 이번 축전장에 펼쳐질수 있게 되였다.

무역은행전시대앞에서 이곳 일군인 김영석동무가 들려준 이야기가 3.8절이야기로 이어질줄은 우리도 미처 몰랐다.

올해의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무역은행 일군들이 온실을 찾아온 사연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한다.

그도그럴것이 얼마전에도 한 온실종업원의 얼굴에 비낀 한점의 그늘속에서 가정문제로 하여 그가 마음을 쓰고있다는것을 알고 두팔을 걷고나서서 도와준 책임일군들이였다. 이처럼 일군들은 꽃을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꾸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선참으로 해결해주군 하였다.

3.8절에 찾아온 사연

3.8국제부녀절 많은 후방물자들을 안고 달려온 책임일군들의 모습에서 리은경동무를 비롯한 온실종업원들은 집단의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합쳐져 피운 불멸의 꽃이여서 하나같이 아름다왔다.

소중한 열망

이번 축전장에는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의 차현준학생이 피운 불멸의 꽃 김일성화도 있다. 나어린 그의 가슴속에 태양의 꽃이 소중히 자리잡게 된것은 5년전이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가한 현준이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많은 자랑들을 안고 경축행사에 참가한 다른 동무들에 비해볼 때 자기의 자랑이 너무나 작은것만 같아서였다.

그때부터 현준이는 부모의 방조속에 집에서 불멸의 꽃들을 정성껏 가꾸었고 해마다 꽃축전에도 참가하게 되였다.

불멸의 꽃들을 키워오는 나날에 어린 현준이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앞날의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자랄 열망이 소중히 간직되게 되였다.

하기에 쌓모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좋은 일도 적극 찾아하였다.

나이는 어려도 주체의 영원한 혜님을 우러르며 키높이 성장해가는 우리 새 세대들의 이런 아름다운 충정의 마음도 뜨겁게 비끼흐르는 불멸의 꽃축전장이다.

본사기자

불같은 지향안고

봉화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에서 참관자들의 눈길을 특별히 모은 전시대들가운데는 진분홍 보라색꽃잎을 한껏 펼친 300여상의 불멸의 꽃과 함께 김일성화의 열매를 전시함으로써 축전장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한 봉화지도국전시대도 있다.

하나같이 아름답게 활짝 피여난 꽃송이들사이에 소담하게 맺힌 김일성화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뜨겁게 새겨안는다.

불멸의 꽃축전장을 환희롭게 장식할 하나의 지향을 안고 총정의 날과 날을 이어온 봉화지도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순결한 마음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잘 키워 대대손손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관자들로 하여 인산인해를 이룬 전시대앞에서 우리와 만난 처장 배현숙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꽃축전을 어떻게 하면 더 의의있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던 김명철, 전철동무를 비롯한 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오랜 재배경험을 가진 천에서 리정옥동무의 이야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김일성화의 열매와 씨앗과 관련한것이였다.

김일성화의 식물학적특성을 잘 알아야 불멸의 꽃을 더 아름답게 키울수 있는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하여 지도국의 일군들은 이번 축전장에 김일성화와 그 열매를 함께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불멸의 꽃의 식물학적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축전을 더욱 뜻깊게 하자는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김일성화의 열매를 자래우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더구나 꽃과 열매를 함께 자래우자면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이들에게는 열매를 자래워본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축전장으로 향한 하나의 마음, 불멸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하나의 지향은 돌우에도 꽃을 피울 불같은 열정을 낳아 오늘의 꽃축전장을 이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게 장식할수 있었다.

봉화지도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그 불타는 마음들이 자래운 김일성화의 열매,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실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간직된 하나의 지향이 낳은 충정의 열매였고 절세위인들의 강국념원을 키어이 현실로 꽃피워나갈 신념과 명세의 씨앗이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민

만리마시대를 노래하는 꽃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고 념원이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은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형상한 전시대들과 더불어 축전장에 더더욱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불멸의 꽃으로 뜻이 깊고 특색이 있는 형상을 펼친 교육위원회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연방 탄성을 올렸다.

250여상의 김일성화가 활짝 피여있는 전시대에는 민들레학습장과 멋진 책가방들이 훌륭히 형상되여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게 하였다.

교육위원회 일군인 심응덕동무는 한평생 후대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가 만든 민들레학습장이 들어있는 멋쟁이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하는 생각을 하니 전시대에 위원회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이한결같은 마음을 꼭 반영하고싶은 동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리순희동무를 비롯한 온실종업원들이 태양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김일성화를 숭엄히 바라보니 금시라도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어려오는것만 같고 하나하나의 전시품들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련상케 했다. 불수록 우리 수령님과 아이들사이의 떼래야 떼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숭고한 화폭을 전하는 전시대였다.

전시대앞에서 다지는 학생들의 마음속결의가 비껴있는 수천개의 꽃잎으로 형상한 《5점》글발은 이제 우리 후대들의 민들레학습장에 끝없이 새겨지게 될것이며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도 한뿌리 자라나게 될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전시대에 새겨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발을 바라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모습으로 환희롭게 안겨왔다.

축전장에 펼쳐진 려명거리

《어쩌면 저리도 신통할가. 여기에 려명거리 70층아빠트도 있구만.》

자기 단위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의 환희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수도건설위원회의 일군인 염호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축전준비의 나날 위원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창안한 전시대형상도안은 수십가지나 되였다. 그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였지만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으로 들끓는 오늘의 시대를 더 잘 반영하지 못한것만 같은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3월 어느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순간 그들의 머리속에는 절세위인의 그 숭고한 뜻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울 우리 수도건설자들의 충정의 마음에 받들려 태양절전으로 완공될 려명거리의 장대한 모습을 전시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래쳤다.

이렇게 되여 전시대제작을 맡은 진룡광동무는 려명거리를 현실감이 나게 형상하기 위해 촬영기를 메고 건설장을 매주발듯 하며 마침내 도안을 완성하게 되였다.

원예사, 재배공들도 깨끗한 충정의 마음으로 김일성화재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다. 불멸의 꽃이 만발한 전시대에 훌륭히 형상된 려명거리를 보면서 참관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것을 어찌 그 생동함때문이라 하랴.

만리마의 기상으로 최상의 문명을 향해 전진하는 조국의 모습을 훌륭히 형상한 전시대와 더불어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로고를 마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가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와 참관자들모두가 눈시울을 적신다.

강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해외연고자가족들 꽃바구니 진정,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16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락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6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해외연고자가족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연고자가족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해외연고자가족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청진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2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피지국적선박 《하오판 6》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조선인민이 희세의 천출위인을 맞이한 혁명적대경사의 날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기상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천재이시라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고 언급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락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정치군사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만경대방문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도 숭고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방문을 통하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그이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만경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이며 혁명의 성지이다.

또한 이날 대표단은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 려명거리를 참관하였다.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몰도바공화국 사회주의자당대표단,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당대표단성원들이 제19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축전장을 찾은 그들은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명화로 더욱 활짝 피여나고있는 불멸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를 경탄속에 돌아보았다.

김일성대원수님은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강조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1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경축행사에 참가한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온 겨레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이역에 사는 재중동포들도 불세출의 위인을 위대한 수령으로,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민족적자긍심으로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태양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진행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항일혁명전구들을 언제나 안고 사는 재재중동포들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금이금이를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쥐락펴락하신 만고의 민족적영웅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이 깊이 새겨져있다.

인류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위인들과 그들이 이룩한 공적이 기록되여있다.

허나 령도력과 풍모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공적에 있어서 우리 대원수님과 같으신 위대한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식민지약소민족의 눈물의 아리랑만이 흘러퍼지던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메아리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분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김일성대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애국, 애족, 애민의 헌신의 자욱이 있었기에 우리 겨레는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며 용성번영하는 강대한 민족, 절세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민족으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정녕 김일성대원수님은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위인중의 위인, 성인중의 대성인이시다.

오늘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통하여 우리 축하단의 전체 성원들은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수령복, 위인복을 맡아안은 특전과 대행운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는 백두산높아래에 사는 태양민족의 후손답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국의 강국건설과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12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왕가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왕아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장조리, 공현우 외교부 부장조리, 화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관공실 부주임,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박명호 중국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박명호 림시대리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튼튼한 기틀을 다져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왕가서 부주석은 김일성주석은 조선 당과 국가, 군대의 위대한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그이는 또한 중조친선을 마련하신분이시다, 그이께서는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선인민이 김정은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강의하게 전진하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과 근본리익에 부합된다, 이것은 또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고 하면서 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한편 10일 중국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연회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 중국 단동에서 개막

태양절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가 14일 중국 단동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가 열리는 조중문화전람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이 형상되고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새겨진 대형선전판이 세워져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중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백두의 대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태양의 꽃들인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련일 창조되고있는 주체조선의 모습과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전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박명호 중국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리순철 문화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전람회대표단, 재중동포들과 고애화 중국 료녕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반상 단동시인민정부 부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리순철 문화성 부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의 로세대지도자들과 함께 마련해주신 조중친선의 력사와 전통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전람회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을 더 잘 알게 하는 훌륭한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한지영 심양동방화원 원장은 이번 전람회가 성과적으로 개막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조선의 력사와 문화, 조선인민의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선과의 교류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구영혁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는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이룩하신 공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람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깊은 감명속에 전람회장을 돌아본 중국의 여러 인사들은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중국인민들도 끝없이 경모하는 위대한분이시다, 두 나라의 선대수령들께서 함께 계시는 사진문헌들을 보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중조관계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번 전람회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전람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개막

태양절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6일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 기발과 로씨야기발이 게양되여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 우표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수공예품들이 여기에 전시되여있었다.

개막식에는 로씨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 출판보도관계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주악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원인 전로사회조직 《로씨야인민총회》 리사회 위원장 스미르노바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한 경축행사를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조친선관계발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쌓으신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두 나라 관계는 수뇌분들의 관심속에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앞으로 로조친선관계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웨. 아. 베뜨로브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그이의 탄생일을 성대히 경축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벗들인 우리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로씨야지역사회조직 《보로지노》 부위원장 꼬라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평화를 수호할뿐아니라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으로 일떠 적대세력들에게 주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념원이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계승해나가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통일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전람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 벌가리아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기간에 벌가리아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으며 우리 나라 기발과 벌가리아기발이 드리워져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벌가리아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의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의 문화와 력사를 보여주는 전람회가 진행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일성주석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이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이번 전람회는 오랜 력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 조선과 근면한 조선인민의 재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할뿐아니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도모하고 문화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면서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을 걸고들 체면이 있는가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이 충청남도 태안의 한 사격장에서 사거리가 800km인 탄도미싸일 《현무-2》의 시험발사놀음을 벌려놓고 그것을 공개하는 광대극을 펼쳐놓았다.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민총이 쑥대에 오른것처럼 기고만장해하며 《북전역을 타격》할수 있다느니, 《올해안에 실전배치할것》이라느니 하고 흰목을 빼들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대북선제타격》에 나서려는 괴뢰군부불한당들의 책동이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

괴뢰호전광들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그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오래전부터 미국상전에게 탄도미싸일의 사거리를 늘여줄것을 끈질기게 청탁해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의 승인밑에 괴뢰들은 사거리가 500km인 탄도미싸일을 개발, 배치한데 이어 《북의 전지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미싸일능력확보》를 운운하면서 사거리가 800km에 달하는 탄도미싸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괴뢰들이 《현무-2》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강행한것은 북침전쟁광증의 뚜렷한 발로로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된 가운데 상전과 함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불의적인 핵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북침전쟁각본들의 실전가능성을 검토하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법어진 탄도미싸일시험발사놀음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이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한층 고조시키는데로 이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극도로 증대되고있는 원인이 미국과 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에 있다는것은 다시금 확증되였다.

문제는 괴뢰들이 벌려놓은 탄도미싸일시험발사놀음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껏 입만 리지면 《북의 미싸일위협》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선불맞은 이리처럼 길길이 날뛰면서 못되게 놀아댔다. 우리의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발사는 물론이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마저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미친듯이 매달렸다.

그런데 미국은 괴뢰들의 이번 탄도미싸일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있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현실인가.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을 무작정 불의로 매도하며 온갖 감투를 씌워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지랄발광하는 미국이 괴뢰들이 벌려고있는 탄도미싸일개발에 대해서는 찍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이야말로 불공정한 이중기준, 랑면적인 처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더이상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대해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그 무슨 유엔《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비난할 꼬물만 한 자격도 체면도 없다. 저들의 탄도미싸일개발소동은 아무 일도 없고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는 이런 날강도적인 론리, 황당무계한 궤변은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걸고들며 제재압박에 기승을 부리여도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들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끊임없이 취해지게 될것이다.

가소롭기 그지없는것은 미국의 로골적인 비호와 부추김밑에 어벌뚝지가 커진 괴뢰역적패당이 그 무슨 《북의 전지역에 대한 타격》에 대해 떠들어대며 허세를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목숨을 겨우 연명해가는 식민지하수인이 우리를 어째보겠다는것자체가 백년묵은 늙부치도 포복절도할 해괴망측한 추태이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무리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통일된 백두산대국의 새 아침을 총대로 안아오려는 우리 혁명무력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감당속의 미꾸라지가 아무리 몸꼴을 꾸어도 용이 될수는 없는 법이다.

괴뢰호전광들은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군사적도발소동이 어리석은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심 철 영

정의의 핵불벼락을 피할수 없다

미국이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었다.

어제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흉악무도한 《특수작전》놀음을 벌려놓더니 오늘은 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우리를 위협하려고 날뛰는 미국의 호전적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수역에 《칼빈손》호를 또다시 진입시킨것은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모한 침략행위가 아닐수 없다.

교활한 미제가 그 무슨 《통상적인 항행》이라고 얼버무리고있지만 자그마한 우발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조선반도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누구에게나 뻔하다.

사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기도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같은 타격수단들로 우리를 어째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미국의 도발적망동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으로 궁지에 몰린자들의 최후발악, 마지막단막으로서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

얼마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칼빈손》호의 조선반도진입은 《미국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고 야유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으로서는 무력시위로 허세를 부리는것밖에는 별로한 대책이 없다는것이다.

수틀리면 핵항공모함따위를 들이미는 미국의 위협공갈에 눈섬 하나 까딱할 우리 인민이 아니며 흥기를 꺼내든 강도의 무리들이 승냥이이빨을 드러내고 집어삼키려고 날뛰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가 아니다.

애당초 우리는 미국이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남들을 위협하군 하는 핵항공모함을 한갖 비대한 먹태동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모든것이 청소하던 지난 세기 50년대에 바다의 섬이라고 하던 미제침략군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통째로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려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써준 우리 군대이다.

가증스러운 침략의 전초기지들과 발진기지들을 단숨에 날려보낸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다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불을 즐기는 호전광들이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의 초강경의지이다.

《칼빈손》호따위를 얼마든지 들이밀어보라.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우리에게 바싹 접근해올수록 그만큼 우리의 핵조준경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것으로 될것이며 그것은 비참한 수장의 시각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초래할것이 없다.

만일 미제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무자비한 정의의 핵불벼락이 쏟아질것이다.

미국은 우리 혁명무력이 가질것은 다 가지고있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빈손》호의 조선반도진입이 미국의 《군사적행동가능성을 시사하는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분수없이 떠들어대며 물렁방울렁방하는 괴뢰패당에게도 경고한다.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미국과 한동아리가 되여 핵전략자산들을 마구 끌어들이며 북침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상전과 꼭같은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전쟁열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자중, 자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참혹할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

세계는 백두산대가 무섭게 분출하는 용암속에서 미제의 성조기가 어떻게 타버리며 흉악한 침략자와 추악한 주구들이 어떻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허 영 민

오늘의 세계

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얼마전 미해군당국자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선박들이 자기 해군의 선박에 가깝게 접근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군사적충돌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해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은 미해군이 페르샤만에서 떠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는 《페르샤만에서 미국인들과 관련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이 지역을 떠나 지역나라들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것이 더 낫다.》고 까밝히고나서 《자기 집에 뛰여든 남도적을 환영한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곳에서 미해군이 이란경비정에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동기는 미해군구축함의 앞길을 이란경비정 4척이 가로막았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사건은 그전에도 여러건이나 발생하였다. 그때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코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망동들에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군 하였다. 이란미국대결전은 이란에 있어서 자주권을 지키는 수호전이며 미국에 있어서는 국제법적으로 부여된 이란의 합법적권리를 빼앗기 위한 집요한 강탈전이다.

이란과 미국사이의 마찰로 하여 이 지역에서의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있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호르무즈해협이 화약고로 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이 원유수송통로가 만약 전쟁으로 하여 막힌다면 심각한 원유위기가 발생하여 국제원유가격의 폭등을 초래할뿐아니라 서방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을 조성하고 세계경제에도 엄중한 타격을 줄수 있다.

분석가들은 만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30일동안만 봉쇄한다면 미국은 수백억US$의 손실을 입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으로 통하는 해상교통로를 혼란에 빠뜨리는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느니, 그에 대처할 준비가 언제나 되여있다느니 뭐니 하며 북닥소동을 일구었다.

세계지배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은 노란자위와 같은 호르무즈해협을 한사코 장악하려 하면서 이 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항공모함전단을 항시적으로 이 지역에 배비해놓고있다.

이란도 이에 쉽게 굴복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책동에 대응하여 끝까지 맞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2월말 이란해군은 호르무즈해협부근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벌렸다. 연습은 함선과 직승기들이 동원되여 해협부근의 200만㎢의 광활한 지역에서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새로 개발된 페이자유도대잠수함미싸일과 최신형순항미싸일의 시험발사가 있었다. 미싸일들은 목표물들을 정확히 명중하였다. 이에 앞서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중부의 사막지대에서 개량형침단미싸일들을 발사하여 적대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륙군사령관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한다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로골화될수록 미국에 대한 이란의 대응도 그만큼 강경해질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치렬한 전쟁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란의 노력은 보다 적극화될것이며 미국은 제아무리 발악해도 자주권수호를 위해 결연히 떨쳐나선 이 나라 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가리울수 없는 《반테로전》의 침략적성격

얼마전 이라크의 모쏠시에서 몇시간동안이나 계속된 미군의 무모한 공습으로 수백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도시에 있는 《이슬람교국가》 호전분자들을 타격한다고 들이치던 미군전투기들이 이런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민간인사상자규모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이 참혹한 공습사건을 놓고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은 처음에 이에 대해 모르쇠를 하였지만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의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지못해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기에는 이번 사건이 너무나도 엄청난것이였기때문이다.

미국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간인공습사건과 관련한 공식수사에 착수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 공식수사놀음은 저들의 진범죄를 성근히 반성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유치한 목적에서 진행되고있다.

미군부의 여러 인물들이 저마끔 나서서 하는 말언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해당 공습이 이라크의 요청에 의한것이였다느니, 미군은 언제나 민간인들속에서 단 1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도록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해댔다. 그러면서 《이슬람교국가》가 련합군의 작전을 방해할 목적밑에 인간방패전술에 적극 매달리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사상자의 혹을 제기하고있다고 떠들었다. 결국 저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것이다.

이를 놓고 로씨야는 자기들이 수리아의 알레뽀동부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무지막지한 공습만행을 비난하였다. 유엔인권기구도 위키에 처한 테로분자들이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방패로 삼고있는 이상 미국도 자기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문제는 미군부의 인물들이나 유엔인권기구가 말하는것처럼 미국의 민간인살륙만행이 결코 무의식적인 잘못으로 초래되였거나 전략이나 바꾼다고 하여 바로잡힐 일이 아니라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반테로전》을 빌린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귀축같은 인간백정질을 일삼아왔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미국은 이라크에 7 250여차, 수리아에 5 820여차의 공습을 가하여 730여건의 민간인살해사건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 무려 수천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죽였다. 2009년이래 미국의 무인기공격으로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만도 800명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떠벌하는대로 이 모든것을 전부 오폭과 실수로 초래된 결과로 볼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미국의 《반테로전》은 명백히 테로세력소탕이 아니라 반미적인 나라들의 정부전복에 목적을 두고있다. 《반테로전》이라는 구호는 이것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광고판에 불과한것이다. 하기에 미국에 있어서 진짜적은 테로분자들이 아니라 해당 나라 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평화적주민들인것이다. 미군에 의한 민간인살해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은 《이슬람교국가》가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리용할뿐아니라 학교와 병원, 례배장소, 력사유적, 주민지들과 같은 보호장소들에 의거하여 싸움을 벌리는 등 온갖 비인간적인 전술을 쓴다고 해도 그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라고 내놓고 떠벌어대고있다. 민간인들에 대한 살해를 동반한 저들의 《반테로전》을 계속 강행하려는 기도의 발로로밖에 말리는 불수 없다. 실지로 미국은 이라크에서 범죄를 저지른지 며칠 안있어 수리아에서 어느 한 학교건물에 공습을 가하여 수십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국의 발광적인 《반테로전》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불상사들이 절대로 근절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오늘 가장 흉악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의 주범으로서의 미국의 추악한 정체를 똑똑히 꿰뚫어보고있는 국제사회는 침략자이며 살인마인 미국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란국가최고안전리사회 서기장은 《반테로》를 구실로 죄없는 민간인들을 죽이는것이 미국의 현행전략이며 이러한 범죄는 명백히 테로단체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감행하는 살륙만행과 다를바 없다고 단죄하였다. 계속해서 미국은 살인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마땅히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하고있는 《반테로전》이야말로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테로행위, 새로운 변종의 침략전쟁책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악의 제국을 들어내야 세계에는 비로소 평온이 깃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ㄱ-71056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번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